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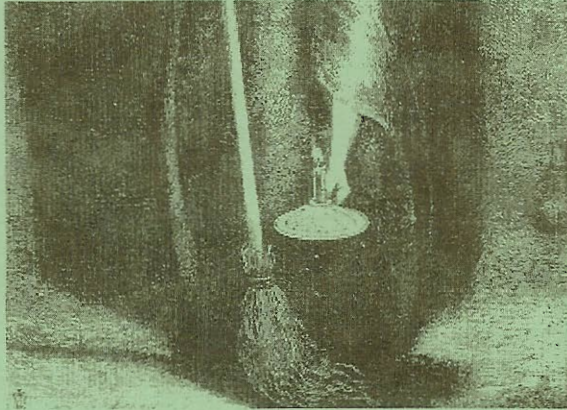


백삼위 한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순교자 성월 연중 제24주일
제3권 42호(다해) 2010-9-12

[묵상]



잃어버린 은전을 찾는 부인

<달지엘(Dalziel), 1863년, 판화, 개인소장>

죄인들을 보는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그들을 배척하고 투덜거리는 마음
길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뒤쫓는 목자의 마음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들의 투덜거림은
자신들의 눈 속에 든 들보를 두고
다른 이들의 눈에 있는 티를 지적합니다.

죄인을 용서하시고 받아들이시는 하느님의 마음에서
하느님 나라의 알 수 없는 계산법이 나옵니다.
의인 아혼아홉보다 회개하는 죄인 하나가
더 큰 기쁨이랍니다.

하늘나라의 기쁨이 되기 위해
길 잃은 한 마리 양이 되어보는 것은 어떨까?
목자가 한 마리 양을 찾아 떠날 수 있는 것은
착한 아혼아홉 마리 양의 힘입니다.
목자가 일을 하시게
힘이 되어드리는 것이 더 좋은 몫이 아닐까요.

하느님 나라의 계산법을 깨우치지 못한
바리새리와 율법학자들은
영원히 착한 목자를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 桓 -

martinlee0501@hanmail.net

미사

빈첸시오회 (어려운 이를 돕는 연락처) : (310) 283-5879
연령회 (장례시 연락처) : (310) 720-8240

수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목요일	아침 미사 (레지오) 저녁 미사	오전 오후	9:00 7:30
금요일	아침 미사	오전	8:30
토요일	성모신심 미사(첫토요일) 특전미사(청년미사)	오전 오후	8:30 7:00
주일	아침 미사 학생미사(영어) 낮 미사	오전 오전 오전	7:30 9:30 11:00

주간 행사동

수요일	면담의 날 (신부님, 수녀님) 거룩한 독서(Lectio Divina) 레지오 마리아	오후 2:00 오전 10:00 오후 8:00
목요일	병자영성체 (1째주) 성 시간 (첫목요일) 레지오 마리아 성령 기도회 예비자 교리반	오전 9:30 저녁 미사후 오전 10:00 오후 8:00 오후 8:00
금요일	거룩한 독서(Lectio Divina) M.E. Sharing(3째주) 울트레아 (4째주)	오전 9:30 오후 7:00 오후 8:00
토요일	유아세례 (작수달 4번째 토요일) 배론 청년모임	오후 6:00 오후 8:00
주일	병자 영성체 / 레지오 마리아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 요셉회/안나회/양엄회 성모회/자모회 대건회/원서회 ● 꾸리아 3째주 - 빈첸시오회 ● 행사의 날 4째주 - 사목회 가정의 날	오전 중 오전 9: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2:30 오전 9:00 오후 1:00

- ※ 고해성사 : 평일미사, 토요특전미사 15분 전, 주일미사 20분 전
-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 병자영성체 : 사무실로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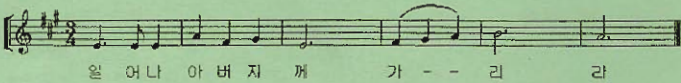
주임신부 : 이창환 마르티노 (310) 326-4350 Ext.103/106
전교수녀 : 문 바티스타 (310) 326-4350 Ext.102
종신부제 : 최영신 프란치스코 (213) 637-9000
평협회장 : 이재정 사도 요한 (562) 403-7345
사무실 : (310) 326-4350 Ext.100 Fax: (310) 326-4360

토 요 특전미사	(연)이종학, 전승유 시몬 (생)최성자 카타리나, 김풍길 바오로, 정여진 노엘라, 정진호 요한,
주 일 낮 미사	(연)김경숙 마리아, 권재식 네오, 김인영 베드로, 이현호 요한, 이영자 마리아, 고준희 제임스, 서인수 요셉, 한태호, 엄은섭 도로테오 (생)김재희 모니카, 유우학레 안나, 홍주희 안나, 홍준호 프란치스코, 이종민 요셉, 이종원 베드로 & 아네스, 반영선 도미니카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탈출기(Exodus) 32,7-11.13-14

화답송 ㉠ 일어나 아버지께 가리라.



일 어 나 아 버 지 께 가 - - 리 라

○하느님, 당신 자애로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당신의 크신 자비로 저의 죄악을 없애주소서.
제 허물을 말끔히 씻어 주시고,
제 잘못을 깨끗이 지워 주소서. ㉠
○하느님, 제 마음을 깨끗이 만드시고,
제 안에 굳건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당신 앞에서 저를 내치지 마시고,
당신의 거룩한 영을 제게서 거두지 마소서. ㉠
○주님, 제 입술을 열려주소서.
제 입이 당신을 찬양하오리다. 하느님께 드리는
제물은 부서진 영. 부서지고 닳아치는 마음을,
하느님, 당신은 업신여기지 않으시나이다. ㉠

제 2독서 티모테오 1서(1 Timothy) 1,12-17

복음 ㉠ 알렐루야.

환호송 ○하느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당신과
화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해의 말씀을
말기셨네. ㉠

복음 루카(Luke) 15,1-32<또는 15,1-10>

영성제송 하느님, 당신 자애가 얼마나 존귀하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당신 날개 그늘에 피신하나이다.

오늘의 성가

	청년미사(토요특전)	낮 미사
미사곡	51-58	33-42
입당	345	230
봉헌	361	270
성체	내이름 아시죠	106
파견	213	194

3. 살인하지 못한다 - 하느님의 신성한 법 -

▶복음과 계명

생명의 복음은 자유의 은총을 입은 사람 안에 놀라움과 감사를 불러일으킨다. 그리고 생명의 복음 자체를 철저한 의무감으로 받아들이고, 보존하고, 존중할 것을 요구한다. 하느님께서는 인간에게 생명을 주셨고, 그 생명을 사랑하고 존중하며 증진시킬 것을 요구하신다. 그러므로 선물은 계명이 되고, 계명이 바로 선물인 것이다.

창조주께서는 살아있는 하느님의 모상인 인간이 통치자이고 주인이기를 바라신다. 니사의 성 그레고리오는 이렇게 말한다. "하느님께서는 지상의 임금 노릇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인간은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의 형상을 본떠 창조되었습니다. 태초부터 인간의 본성을 드러내는 모든 것들에는 임금다운이 깃들어 있습니다.…… 인간은 임금입니다. 세상에 대한 지배권을 행사하도록 창조된 인간은 우주의 임금님과 닮았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품위로서 신성한 원형의 완성에 참여하는 살아있는 형상입니다." 인간은 자식을 낳고 번성하여 세상을 정복하고 다른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라는 부르심을 받고 있다.(창세 1,28 참조). 그러므로 인간은 사물에 대한 통치자이고 주인일 뿐만 아니라, 특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자신이 받았고, 사랑과 하느님 계획에 대한 존중으로 수행되는 출산을 통해 전달 가능한 생명에 대한 통치자이고 주인이기도 하다. 그러나 인간의 주권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대리인의 권리와 같은 것이다. 그것은 하느님의 유일하고 무한한 주권의 참된 반영이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느님의 무한한 지혜와 사랑에서 나누어 받은 지혜와 사랑으로 그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은 하느님의 신성한 법에 순명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그 순명은 자유롭고 기쁜 순명이며(시편 119 참조), 주님의 법은 은총의 선물이라는 깨달음에 의해 생겨나고 자라나는 순명이다. 그 은총의 선물은 언제나 오직 인간의 선의를 위해서, 그리고 인간의 인격적 품위를 보전하고 그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인간에게 맡겨진 선물이다. 인간은 사물에 대해서 절대적인 주인도 최후의 심판자도 아니며, 생명에 대해서는 더 더욱 그렇다. 오히려 인간은 "하느님 계획을 실천하는 봉사자"이며, 바로 이 점에 인간의 비교할 수 없는 위대성이 있다. 생명은 낭비해서는 안될 보물로 인간에게 맡겨졌으며, 반드시 선용해야 할 능력으로 맡겨졌다. 이것에 대해서 인간은 반드시 주인에게 보고를 드려야만 한다.

▶신성 불가침한 인간 생명

53). "인간 생명은 그 시작부터 '하느님의 창조행위'와 관련되어 있으므로 신성한 것이고, 그 생명의 유일한 목적이신 창조주와 특별한 관계로 맺어져 있다. 생명의 시작에서부터 끝에 이르기까지 오직 하느님만이 그 주인이다.(◆계속)

천주님의 자리를 빼앗으려 하다니...

필자는 교리시간에 ‘가톨릭(Catholic)’이란 말을 신앙고백의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에서 ‘보편되며’가 바로 ‘가톨릭’이라고 설명합니다.

또 중국에 그리스도교가 전래될 때 라틴말 하느님(Deus)을 ‘천주’(天主, 천상천하의 주인, 하늘의 주인)로 번역했고, 자연스럽게 그 서양 종교를 그리스도(Christus)교의 음을 따서 기독교(基督教)라 혹은 천주교(天主教)라 불렀다는 설명도 덧붙입니다.

어느 분야 가릴 것 없이 일부 지도자들이 그 으뜸의 자리를 이용해 무소불위(無所不爲) 힘을 휘두릅니다. 천주님의 자리를 차지한 것처럼 행세합니다. 정치는 그 사회의 공동선을 촉진하고 특히 공동체의 이름으로 약자를 보살피는 역할을, 경제와 문화는 전인으로서 인간의 품위 있는 삶을 도모하는 역할을, 교육은 인간성과 공동체성의 증진을 돕는 역할을, 종교 특히 그리스도교는 하느님 백성을 돌보고 보살피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세상 모든 분야와 조직은 본질적으로 사람과 사람의 공동체를 위한 터전이라는 성격을 지닙니다. 지도자들이 비록 현실적으로 으뜸의 자리를 차지하지만 어디까지나 각 분야의 구성원과 그 공동체에 종속된다는 한계를 지닙니다. 세상에 무소불위의 권력은 있을 수 없습니다. 무소불위의 힘은 천주님에게만 있으며, 천주님조차도 그 전능하신 힘을 당신 백성 돌보는 데에 펼치셨지 짓밟는 데 쓰지 않으셨습니다.

1독서의 탈출기는 주님께서는 당신께서 “명령한 길에서 빨리도 벗어나, 자기들을 위하여 수송아지 상을 부어 만들어 놓고서는” 이를 자기들의 신으로 삼은 이스라엘 백성을 두고 “타락”한 백성, “독이 뱃뱃한 백성”이라고 질타하십니다.

복음의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은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들의 속을 뒤집어놓았을 것입니다. 얼핏 세리와 죄인들을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은전 한 닢, 그리고 둘째 아들로 비유한 것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을 듣는 이들이 바리사이와 율법학자임을 생각하면, ‘너희들이야말로 잃은 양 한 마리, 은전 한 닢, 그리고 아버지를 죽은 사람 취급하고 그 유산을 미리 받아 탕진한 둘째 아들이다’는 고발로 들렸을 것입니다. 그들이 천대하고 사람 취급하지 않는 세리와 죄인들 앞에서 그런 모욕적인 말을 들었으니 예수님을 죽이려고 애쓴 이유를 알 것도 같습니다.

2독서에서 바오로 사도는 스스로를 “첫째가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때문에 하느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푸셨”다고 고백합니다. 하느님께서 명령한 길을 벗어난 이스라엘과 스스로 의인이며 지도자 행세한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라고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바오로만한 지도자도 혼치 않았으며, 그만한 의인도 혼치 않았으나, 그는 스스로를 죄인으로 고백하고 하느님의 자비에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그분만이 천주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살펴봐도 그분만이 천주님입니다. 분야를 막론하고 곳곳에서 수송아지를 놓고 구성원과 공동체를 현혹하는 이들이 자기들 멋대로 단죄한 오늘의 ‘세리와 죄인’을 뱃상에서조차 내쫓으려 하면서(주변화), 정작 스스로는 의인이며 지도자 행세를 하더라도 말입니다.

◆박동호 안드레아 신부 /

서울 대교구 신수동성당 주임

이번 주 전체 봉사가

이런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송민영 보나	신덕래 대례사	신중철 아브라함
제1독서자	박소영 프란치스카	김교복 레오	이민상 요한
제2독서자	전지요 글라라	서용숙 에스텔	이순자 비비아나
제물봉헌자			토런스 동 2반

다음 주 전체 봉사가

다음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박소영 프란치스카	남성철 베네딕도	정미영 마카엘라
제1독서자	이상용 엘리아	이상철 크리스토퍼	이민상 요한
제2독서자	전지요 글라라	이희경 크리스티나	박희자 마리아
제물봉헌자			토런스 서 2반

-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니다.
- ◆ 미사시간에 늦지 말고, 일찍 와서 묵주기도를 바칩시다.

9월 순교자 성월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 순교자들 대축일 경축이동 : 19일(주일)
- ◆성 마태오 사도 복음사가 축일 : 21일(화)
- ◆성 미카엘·성 가브리엘·성 라파엘 대천사 축일 : 29일(수)

◆ 오늘 주일(12일)부터 주일학교/한국학교 개학
긴 여름방학을 끝내고 각급 학교가 새학기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본당 주일학교와 한국학교도 오늘 주일(12일)
부터 개학하고 수업에 들어갑니다.
여름방학동안 해이해진 몸과 마음을 가다듬고 자녀들이
신앙생활과 학교생활에 잘 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 ◆ LA 대교구 발급, 성체 성혈 분배권자 증서 수여식
 - 일시 : 오늘 주일(12일) 낮 미사 중
 - 대상 : 성체 성혈 봉사교육을 이수한 교우 25명
해당 교우들은 빠짐없이 참석하기 바랍니다.
 - 문의 : 김정웅 요한 ☎(310)720-8240
최재은 베드로 종교교육분과장 ☎(310)694-4585
- ◆ 배론 청년회 기금마련 펀드레이징
배론청년회가 피정 기금마련을 위한 펀드레이징을 합니다.
교우들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 일시 : 11일 특전미사 및 주일(12일)미사 전후
● 판매품목 : 품질좋은 초록빛 바다 미역과 다시마
- ◆ 성경공부(렉시오 디비나) 개강
여름에 휴강했던 렉시오 디비나 성경반을 다시 시작합니다.
● 일시 : 수요일 9월15일 오전 10시,
금요일 9월17일 오전 9시30분
● 장소 : 사무실 앞 강의실
● 미리읽기 : 루카 4,16-22 / 루카 9, 23-26 (수, 금 동일)
(* 처음 시작하시는 분도 환영합니다.)

- ◆ 남가주 여성 제31차 꾸르실로 본당에서 4명 참가
 - 일시 : 9월23일(목)~26일(주일)
 - 참가자 : 윤경옥 실비아, 이호미 엘리사벳, 김진희 골롬바,
김미현 크리스틴 * 봉사자 : 엄혜은 도로테아
 - 많은 기도와 빨랑카를 부탁드립니다.
 - 문의 : 이명순 크리스티나 울뜨레아 간사 ☎(310)749-0276
- ◆ 한가위 합동 위령미사 안내
 - 미사 : 9월22일(수) 오전 8시30분, 오후 7시30분
 - 합동위령미사 등록 : 미사예물은 19일(주일)까지 사무실에
제출해주시시오.
 - 추석미사 후 '송편나눔'이 있습니다. (성모회 준비)
- ◆ 남가주 한인가톨릭 미술가회 제14회 연례 전시회
 - 일시 : 9월11일~24일
 - 장소 : LEE & LEE 갤러리(33130 Wilshire Bl. #502 LA)
 - 지도 : 김효근 야고보 신부
 - 문의 : 김윤진 카타리나 ☎(310)997-5545
- ◆ 본당 사목상임위원회 연수
 - 일시 : 9월26일(주일) 오후 1시~5시
 - 장소 : 강당
- ◆ 안나/요셉회 가을 온천 관광
 - 일시, 장소 : 10월19일(화), 레이크 엘시노 온천장
출발 : 당일 오전 7시30분 성당 주차장
 - 대상 : 55세 이상 형제 자매님들(55명 정원)
 - 회비 : 교우 \$20, 외부인 \$30
 - 준비물 : 수영복, 따뜻한 겉옷, 타올, 샌들
 - 신청마감 : 10월12일(화)
 - 접수 : 김금자 테레사 안나회 회장 ☎(310)539-9526
한춘선 루시아 총무 ☎(310)738-4387
* 봉사자들을 기다립니다

- ◆ 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소공동체
 - 9월12일(주일) : 토런스 남 2반(콩나물밥 \$3)
 - 9월19일(주일) : PV 2반(잡채밥 \$3)

지낸 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김기정	김병조	김병학	김선제	김영길	김 옥
	김정엽	김종렬	김종문	김종선	김주량	김준호
성전헌금	김형순	남명자	노천수	노혜숙	박광자	박상준
	박씨나	박인식	박정희	방정복	배기엽	성낙호
성전헌금	송기철	송재훈	이근모	이민상	이상석	이상철
	이연행	이영숙	이용무	이인두	이희영	장영우
성전헌금	정정현	정자숙	조영희	조화숙	채양식	최이원
	최태훈	최희숙	한창주	황학수	영희가보라	
합계 : \$4,170						
미사헌금 : \$2,323 2차헌금 : \$860						
성전헌금	김기정	김병조	김병학	김선제	김영길	김 옥
	김정엽	김종문	김주량	김준호	김형순	남명자
성전헌금	노천수	노혜숙	박광자	박씨나	박인식	박정희
	방정복	배기엽	성낙호	이근모	이상석	이상철
성전헌금	이영숙	이용무	이희영	장영우	정지숙	조영희
	조화숙	채양식	최이원	최태훈	한창주	
영희가보라						
주보광고후원금 \$500 합계 : \$2,650						
감사헌금 : 서정훈 & 황두갈다 정여진 주용범						

공지사항

◆ 주일학교 / 한국학교 새학기 등록

- 주일학교 수업시간 : 학생미사후~오전 11시45분
- 한국학교 수업시간 : 낮 12시~오후 3시

주일학교 등록

- 대상 : 유치부(9월기준 4살반 이상)~12학년
- 등록기간 : 오늘 주일(12일)까지(이후 \$10 추가)
- 등록비(1년) : \$100, 둘째 \$80, 셋째 \$60, 넷째부터 무료
- 자모회비 : \$40 (가정당)
- 접수 : 미사후 현관 접수처
- Liability 문제로 교구 지침에 따라 주일학교 학생은 반드시 등록서류를 제출해야 수업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등록을 속히 마치주시면 모든 준비에 도움이 되오니 부모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 문의 : 강혜원 아네스 교장 ☎(310)780-0369

한국학교 등록

- 등록일자 : 오늘 주일(12일)까지(이후 \$10 추가)
주일학생미사~11시미사 전후
- 등록금 : 첫째 \$160, 둘째 \$150, 셋째 \$140, 넷째 무료
(이 금액에는 대교 Enopi 교재 \$40과 SAT II 교재 \$75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대상 : 만 4세반 이상~
- 특수반 문의 : 이혜레나 한국학교장 ☎(310)347~8765

남가주 소식

◆ 제2기 면형강학회 모집

- 강학내용/과정 : 매월 2회, 2년 과정. 한국천주교회사와 미국 교회사를 중심으로 민족의 구원사와 영성을 공부하고 기도하며 성지순례를 통해 신앙을 채신, 영성을 심화합니다.
- 강학반 : 주일반 9월19일 개강 오후 2시~6시
주중반 9월21일 개강(화) 오후 2시~6시
- 회비 : 한 학기당 \$60
- 강학장소 : 한국순교복자수녀회 미주지부원 내 한국순교자
- 영성센터(16276 California Av. Bellflower, CA 90706)
- 문의 : ☎(562)461-8100

◆ 성 골롬반 청소년 선교회 새회원 모집 설명회

- 일시 : 9월19일(주일) 오후 2시30분~5시
- 장소 : LA 성 아그네스 천주교회 한인회관
- 참석대상 : 기존 회원들과 새로 가입하고자 하는 9~10학년 학생과 보호자 1명
- * 지도 : 최용훈 요셉 신부
- 문의 ☎(323)734~4946, scyc2006@gmail.com

이번 주 단체 모임

모임의 날	
-------	--

다음 주 단체 모임

행사의 날, 사목회장단 모임	
-----------------	--

소공동체 9월 반모임 안내

소공동체 부 장		김찌니 클라라	(310)612-8840
차 장		박희자 마리아	(310)325-6982
차 장		이정수 헬레나	(310)972-9193
구역/장	반	반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유현자 안나	1	변혜경 올리아나 920-5153	이순자 비비안나 834-8856 9/10(금) 오후 7시 성당
	2	한창주 요아킴 530-7702	민안나, 석안젤라 530-7702 9/11(토) 오후 7시 성당
	3	문지숙 엘리사벳 800-5612	문지숙 엘리사벳 800-5612 9/16(목) 오후 8시
	4	정종미 클라라 377-4749	정종미 클라라 377-4749
토런스 서 장정진 베로니카	1	이진향 아네스 989-0366	김우용 시몬 (213)369-0288 9/17(금) 오후 7시
	2	이크리스 아가토 619-7763	윤바오로 & 실비아 316-7819 9/11(토) 오후 6시
	3	권영옥 루시아 720-2876	방미숙 마리아 720-2876 9/11(토) 오전 10시30분, 성당
	4	이은록 요셉	이은록 요셉 371-4645
토런스 남 박희자 마리아	1	이명자 마가렛 433-9075	이명자 마가렛 433-9075 9/17(금) 오후 7시
	2	이정수 헬레나 972-9193	박희자 마리아 972-9193 9/8(수) 오전 10시30분 성당
	3	안희경 크리스티나 750-4051	이현창 야고보 626-7348 9/18(토) 오후 6시
	4	이정훈 안셀모 908-8823	이정훈 안셀모 908-8823
토런스 북 최미열 클라라	1/2	조화숙 안젤라 213-272-8393	최미열 클라라 895-8624 9/10(금) 오후 7시
	3	대전희 : 거주지 역반으로 배속	대전희 반모임이었던 토런스 북3반 은 거주지역반으로 배속됩니다.
하버 카슨 윤남열 세라피나	1/2	박혜경 레나타 808-5005	조소영 수산나 808-5005 9/11(토) 오후 7시 성당
	3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김옥보 안나 518-1736 9/8(수)
P. V. 김명재 아가다	1	남경희 베네딕타 384-3289	최진수 에우세비오 377-0345 9/10(금) 오후 7시
	2	김숙희 유소사 544-4807	배진영 프란치스코 377-2228 9/10(토) 오후 7시
	3	박은혜 클라우디아 796-6763	허정자 리타 377-3820 9/17(금) 오후 7시
	4	강숙경 도미니카 541-0767	강숙경 도미니카 541-0767 9/14(화) 오전 10시30분

주보로 배우는 교리

복음을 듣기전 십자성호 긋는 의미는?

☞ 조금 부끄러운 질문이지만, 미사 중 복음을 낭독하기 전 "주님 영광 받으소서" 하면서 오른손으로 이마와 입술과 가슴에 작은 십자표를 하는데, 자세한 의미를 알려주십시오.

네, 바로 십자 성호를 긋는 것입니다. 즉 손가락을 모아 편 상태에서 엄지손가락으로 이마, 입술, 그리고 가슴에 십자가를 조그맣게 긋는 행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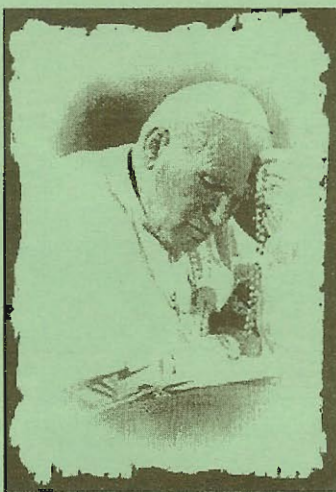
일반적으로 십자 성호는 두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큰 십자 성호와 작은 십자 성호이지요. 큰 십자 성호는 우리들 가톨릭 신자들이면 누구나 다 기도나 예식을 전후해서 긋고 있습니다. 먼저 왼손을 가슴에 대고 오른손 끝을 모아 붙인 다음 이마와 가슴과 왼쪽 어깨와 오른쪽 어깨에 대면서 "성부와 성자와... 이름으로, 아멘" 하는 것이지요. 이 동작을 함으로써 사실 그리스도교의 가장 심오한 진리들인 삼위일체의 신비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심으로 온 인류를 구하셨다는 구원의 신비를 고백하는 것이지요.

그 외 작은 십자 성호는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미사 때 복음을 듣기 전에 사용됩니다. 이 때 작은 십자가를 이마, 입술, 그리고 가슴에서 긋는 것은 먼저 주님의 말씀을 머리로 받아들이어 간직하며 또 이를 입술로써 이웃에게 적극적으로 전파하겠다는 다짐이지요. 더욱이 가슴에다 십자 성호를 긋는 것은 우리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신앙의 신비를 마음으로 이해하겠다는 표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 미사 때 복음을 듣기 전 이 작은 십자 성호를 그으면서 우리의 복음전파 사명을 다시 다짐해야 하겠습니다.

☞ 장례식에 가서 가끔 겪는 갈등입니다. 고인이나 고인의 사진 앞에서 큰절을 해도 되는지요? 개신교 신자들은 우상숭배라 하여 목례만 하는데 그들과 같이 갓을 때는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요?

먼저, 고인(故人) 앞에서 큰절을 하는 것은 그분에 대한 예의입니다. 마찬가지로 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 역시 깊은 효심의 발로가 아닙니까? 물론 제사에서든 미신적인 요소는 제거해야 하지요. 미신적인 요소로는 제사 예식 중에 혼백(魂魄)을 불러들이는 강신(降神)이나, 영혼이 음식을 들 수 있도록 청하는 축(祝)이나, 잠시 문을 닫는 함문(闔門), 그리고 신위(神位)를 모시는 것들이지요. 그러나 죽은 이의 묘 앞에서 혹은 죽은 이의 사진이나 이름이 적힌 상 앞에 절을 하거나, 그들을 공경하는 표시로 제사 음식을 차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우상숭



배라 한다면 너무 지나치지 않을까요? 마찬가지로 영안실 등에서 고인이나 고인의 사진 앞에서 절을 하건 고개를 숙이든 중요한 것은 그 분에 대한 공경과 예의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상이나 성모상 앞에서 예의를 표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지 그 상 자체를 예수님이나 성모님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언젠가 영안실에서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친구 사이인지 몇 분이 고인의 사진 앞에서 차례로 향을 올린 뒤 인사를 하는데, 고개만 조금 숙인분, 이처럼 제각각이니 보기에 조금 어색하였습니다. 그

래서 이유를 물어보니 역시 서로 다른 종교를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경우, 사전에 서로 합의를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인 앞에서 그분의 죽음을 애도하고 그분의 평안한 안식을 기원하는 잘에서 종교 차이로 서로 어색한 장면이 나오는 것은 조금 생각해볼 일이 아닐까요?

☞ 주일미사 때 5달러를 봉헌금으로 내고 있습니다. 너무 적은지요? 아니면 어떤 특별한 기준이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번쯤 생각해봐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교회를 세우셨다는 사실이며 우리 신자들은 교회를 유지해나가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입니다.

헌금이나 교무금의 액수는 규정된 것이 아니라 본인의 성의에 맡겨야지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볼까요? 친한 친구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흔히 커피 한 잔 나누지 않습니까? 요즈음 커피값도 상당히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식사를 한다든지 하며 반가움과 성의를 표시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만날 때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해봅시다.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하느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한 교회의 유지를 위해 그리고 형편이 어려운 분들을 돕는다는 의미로 교무금과 헌금을 내어야 하겠습니다. 요즈음 경제난국으로 인하여 각 본당마다 봉헌금이 줄어드는 실정입니다. 더욱 가슴 아픈 사실은 이로써 가난한 이와 불우이웃, 혜택이 필요한 이들이 점점 더 소외된다는 점이지요. 그러니 이 어려운 시기에 나도 어렵지만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과 나의 것을 함께 나누는 의미에서 기꺼이, 기쁘게 헌금을 성의껏 내 주셨으면 합니다.

<◆자료 : 서울대교구 문화홍보국 정보마당>